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5일 목요일 음 7월 15일 (7물)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5~26℃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9~31℃까지 오르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60%	제 주	20%
60%	성 산	20%
60%	고 산	20%
30%	서귀포	20%

	해뜸 05:56 / 해짐 19:21	달뜸 19:26 / 달짐 05:20
물때	만조 10:25 / 23:22	간조 05:20 / 17:03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6/30℃
모레	구름 많음	25/30℃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높음

월드뉴스

세계 각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대만서도 사과·보상 요구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세계 각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대만도 동참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로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스스로 고백한 날이다. 2017년 12월 이 날을 기리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이 됐다.

이날 오전 대만여성구조기금회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지부 앞에서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 세계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의 대만 정계 인사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거리행사에는 만약을 위해 경찰 50여명이 배치됐다.

왕쥐안핑 대만 노동인권협회 집행장은 "역사는 지울 수 없다"며 "현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못 본 척하지 말아달라"고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

왕위민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한국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만은 민간단체에 비해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본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할머니들의 존엄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제주지역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제언

이 성 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도의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좋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 보이는 한라산과, 초록의 녹지들,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으로 들어올 때 보이는 제주도의 오름과 마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구증가와 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와 녹지지역 내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의 부담이 증가되어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및 매립장 등의 용량부족과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결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주의 자연경관적 가치나 환경자원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로 웨이스트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실천하고 있다. 미국 환경운동가 로렌 싱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여서 3년 동안 나온 쓰레기가 손에 잡히는 작은 병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쓰레기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실천 전략은 세가지다.

첫째, 제주지역도 필환경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시대라고 한다. 예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적정한 사회의 기준이였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 개념을 제주지역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자.

둘째,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최우선하도록 하자. 제주지역은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편리하게 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지는 못한다.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에 주목하도록 하자.

셋째, 식자재 및 공산품의 유통 및 포장방식을 바꿔 보자.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섬이라서 육지부에서 공산품이 유입되고, 제주에서는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 개별 포장형태라서 종이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포장지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제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의 경우 개별 포장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무게를 달아서 포장하거나 개인 바구니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1·2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활성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도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제74주년 광복절

김 률 근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세력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에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 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첨단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된 대일경제 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 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 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 온 한반도에 평화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를 완성시킵시다.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합시다

김 광 식
제주의료원장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오래 머물거나, 활동으로 체온이 상승해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일사병, 열사병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고 피부에만 발적이나 땀띠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열발진, 다리와 발이 붓는 열부종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온열질환들이다.

열사병은 체온상승, 탈수, 전해질불균형으로 의식소실까지 생기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 지기도 한다. 이미 체온조절능력이 소실돼 몸은 뜨거운데 땀은 별로 안난다. 쓰러지면서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구토를 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다. 저항력이 떨어져 감염병이 심해지거나 근육이 손상되거나, 콩팥, 간, 등 여러 장기가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일사병은 열사병과 달리 신경계통의 손상이 미미해 의식소실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온열질환들이다. 더러는 열실신이나 열탈진을 일사병으로 부르기도 한다. 열실신은 더운데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인데 피가 하지로 몰려 생기는 일종의 기립성저혈압이다. 열탈진은 더운 곳에서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일한 후 지쳐서 심하게 기운이 없는 상황을 연상하면 되겠다.

온열질환은 첫째 물 많이 마시기, 둘째 더위 피하기, 셋째 틈틈이 쉬기로 예방할 수 있다. 물은 충분히 마시는데 중간중간에 스포츠음료를 함께 마시면 좋다. 여름엔 새벽이나 아침, 저녁에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더위에 서 일할 때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면서 체온을 낮춰 주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 같이 일하며 서로를 챙겨주고, 어린이는 절대 차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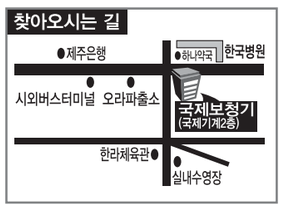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도정 소식

2019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19. 8. 27~28(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제주지역 화상면접(상담)관 운영 : '19. 8.28(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교육장**
- 사전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 (www.financejobfair.co.kr)
- 화상면접 : 8.13(화) 15:00 ~ 8. 19 18:00
- 화상상담 : 8.14(수) 15:00 ~ 8. 19 18:00

○ (주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권 55개사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
○ (대상) 구직자 15,000명
○ (내용) 개막행사, 현장채용관, 채용상담관, 컨설팅관, 부대행사관, 화상 면접 및 상담(지방) 등
* 화상 면접(상담) 현장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정책 및 취업 알선 취업 정보 제공
* (우수 면접자 인센티브) 서류전형 면제 혜택(6개 은행) 및 서류가점(SGI서울보증)
○ (박람회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
○ (문의처)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운영사무국 ☎02-2186-9296~6

2019년도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공모
○ 신청기간 : 2019. 8.12. ~ 8. 23.(공휴일 제외)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문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224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하세요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안내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 '19. 12. 31(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 까지)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등
○ 지원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400만원 지원(차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전기차 구매 시 820만원 정액 지원
- 내연기관차 폐차 및 수출말소 시 150만원 추가 지원
-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 최대 530만원 한도 면제
○ 지원차종 : 24종(승용 21종, 초소형 3종)
○ 문 의 : 저탄소정책과(☎710-2613)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참고

2019년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안내
□ 접수기간 : ~ '19. 12. 27(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 까지)
□ 접수처 :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처 및 영업점
□ 지원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50만원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단, 6개월 이상 보유 이륜차일 것)
□ 지원차종 : 21종(경형 10종, 소형 3종, 삼륜형 8종)
□ 문 의 : 저탄소정책과(☎710-2614)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참고

제주, 마을의 어제와 오늘 마을 기록을 찾습니다.
○ 기록물 주제 ☞ 제주의 마을 기록
- 마을에서 펴낸 향토지(읍지, 면지, 동지, 리지)
-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문건, 필사본
- 농사일지, 마을회의기록
○ 기록물 시기 ☞ 1900년도~현재
○ 기록물 유형
- 시청각류: 인화사진, 동영상, 필름, 테이프 등
- 문서류: 일기, 편지, 메모수첩, 책자, 문건, 향토지 등
- 인쇄물: 포스터, 벽보, 전단지, 엽서 등
• 참가대상: 제주도민 누구나
• 접수기간: 2019.8.26.(월)~9.27(금)
• 참여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제출- 전자우편: yoonsuyang7@korea.kr 송부- 문의: 064-710-2208(도청 총무과 탐라기록물관리팀)
• 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제작하여 수여-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우선적으로 전시- 기록관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하여 예우
• 유의사항: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함기증 기록물은 전시 및 홍보에 활용됨